
5 분 자 유 발 언

-고성군 외곽지역 순회 이동장터 지원 필요성 제언-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군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장터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군은 넓은 면적과 산간 지역이 많아
외곽지역 주민들께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어촌 마을
10개 중 7개 이상이 ‘식품 사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중 70%에 육박하는 2만7609곳이
소매점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고성장날 읍으로 나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및 생활 환경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는
이동장터 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2010년부터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생필품 제공과 더불어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흘농협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행복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식료품과 생필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 계층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지역 농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차량 구입과 운영비,
전담 인력 등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성군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과 기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운영비는 우리 군이,
인력 및 물품 조달과 판매는
지역 농협이 담당한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동장터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함께 판매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장보기가 힘들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동장터 사업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고성군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장터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앞장선다면,
이는 단순히 복지 수준의 향상을 넘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성군이 이동장터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사업 구체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